더불어민주당	도 자 료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민주당사

	중앙당 청년국	연락처	02-2630-7010	E-mail	theminjoo2@gmail.com
배포일시	2026년 11월 21일 (토)		보도일시		즉시

첫 무대서 열린 '1030청년 연설대전'
우승자 4명, 민주당 부대변인 된다

- 71주년 '1030청년 연설대전' 본선 개최 … 7.7대 1 경쟁률 뚫은 청년 당원 5분 연설
- 심사위원단(9인) 50%, 청년 권리당원(50명) 50% 반영해 우승자 결정
- 민주·평화·균형·포용 분야별 우승자 4명, 임기 1년의 부대변인 임명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3시 제2당사(더블루)에서 창당 71주년 기념 「1030청년 연설대전」 본선을 열고 민주·평화·균형·포용 4개 분야에서 우승자 1명씩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승자 4명은 임기 1년의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 민주 분야 신익희 초대 당대표상은 정보현 당원, 평화 분야 김대중 대통령상은 최인준 당원, 균형 분야 노무현 대통령상은 마준영 당원, 포용 분야 문재인 대통령상은 안하늘이 당원이 각각 받았다. 본선 진출자 12명 전원에게는 당대표 포상과 부상을 수여했다.

□ 김민석 당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의 71주년은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위기 극복의 역사였다"며 "정치적 리더십은 늘 연설을 통해 국민과 교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늘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할 것이냐"라며 "이번 연설대전에는 민주당이 보다 더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절박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이야기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할까"라며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청년들을 통해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이 국민들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깨우치고,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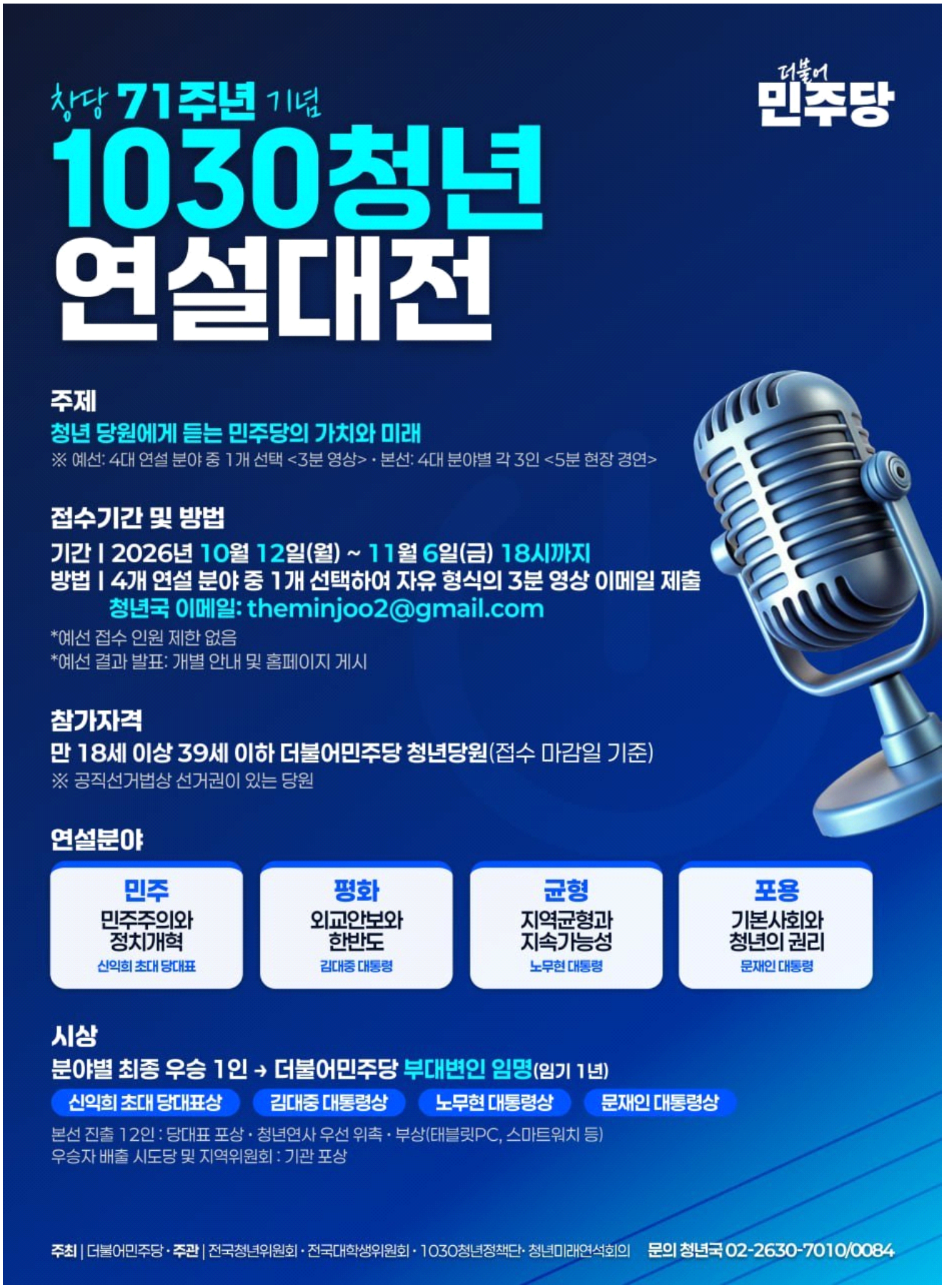
예선에는 총 102건의 연설 영상이 접수됐다. 지원 자격과 제출 기한 등 요건을 충족한 92건을 심사해 분야별 3명씩 총 12명을 선발했으며, 본선 진출 경쟁률은 7.7 대 1이었다. 본선에 오른 청년 당원들은 '민주당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5분간 열띤 연설을 펼쳤다.

□ 제2당사(더블루)에서 열린 첫 행사인 이번 본선에는 청년 당원들이 연사와 배심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9명의 심사위원과 만 39세 이하 청년 권리당원 5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연설을 평가했으며, 심사위원단과 배심원단 평가를 각각 50%씩 반영해 분야별 우승자를 결정했다.

□ 이번 대회는 청년 당원들이 '민주당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고, 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할 청년 연사를 공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국청년위원회·전국대학생위원회·1030청년정책단·청년미래연석회의가 공동주관했다.

□ 붙임 : 1.「1030청년 연설대전」 공식 포스터
□ 붙임 : 2.「1030청년 연설대전」 행사 사진

[1] 1030청년 연설대전 공식 포스터



[2] 1030청년 연설대전 행사 사진






1030청년
연설대전
더불어
민주당
2026. 11. 21(토)
제2당사 더블루